

# 음주차량에 家長 잃은 가족 생계위협 심각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가정이 붕괴박산 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몇 잔 안마셨으니까”, “조금만 가면 집이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무고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만드는가 하면 가정이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지경이다.

## 보상금으론 한계... 피해자 가족 평생 경제적 고통 시달려

### 광주·전남 작년 2034건 발생...57명 사망·3688명 부상

구례에 사는 이모(여·38)씨에게 정전벽력 같은 사고 소식이 날아든 것은 지난해 4월 7일 새벽 4시께. 경찰로 근무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을 기다리는 8시간 동안 “제발 살아만 달라. 아이들 두고 가지 말라”고 수천 번 기도했지만 남편은 끝내 숨을 거뒀다.

이씨의 남편(41)은 당시 아간수술을 나섰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운전자 허모(20)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4%로 면허 취소 수치(0.1%)를 훌쩍 넘긴 만취자였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내고도 정작 사고 당사를 기억하지 못했다.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를 허씨를 원망하는 것도 잠시, 그녀는 당장 생계를 위해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장례를 치른 뒤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동네 마트 판매원으로 취직한 것이다.

이씨는 “아린 자식 3명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 잃은 슬픔을 느낄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전 여수의 한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른 배모(여·47)씨도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을 잃었다.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장례를 치른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배씨는 벌써 남은 아들의 미래와 가족 생계를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배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당장은 어려움은 없겠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고등학교, 대학도 가야 하는데 세상이 모르는데 내가 과연 아들과 세상을 잘 헤쳐나갈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울먹였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달 나주시 중앙동의 한 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전모(56)씨는 출동한 경찰에 음주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해 도주하던 중 인도에 걸어가던 이모(여·57)씨를 덮쳤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전씨는 쓰러진 이

씨를 방치한 채 도주했고 결국 이씨는 숨을 거뒀다.

지난해 8월 보성군 노동면 녹차터널에서 한 달 뒤 결혼을 앞두고 휴가를 다녀오던 서모(30)씨와 약혼녀가 술을 마시고 역주행한 차량과 정면 충돌, 현장에서 숨지기도 했다.

이처럼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데도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2012년 2554건(사망 67명·부상 4749명) ▲2013년 2383건(사망 76명·부상 4399명) ▲지난해 2034건(사망 57명·부상 3688명)으로, 한해 평균 65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박정관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들은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1년6개월~3년 등 징역형을 선고받고 끝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달뜨기 07:44  
해질 17:49    달지기 18:50

**우산 챙기세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리고비	1/7	보성	흐리고비	-1/7
목포	흐리고비	0/6	순천	흐리고비	3/8
여수	흐리고비	4/7	영광	흐리고비	-1/7
나주	흐리고비	0/7	진도	흐리고비	2/8
완도	흐리고비	3/8	전주	흐리고비	0/8
구례	흐리고비	-2/7	군산	흐리고비	-1/6
강진	흐리고비	0/8	남원	흐리고비	-2/7
해남	흐리고비	1/8	홍산도	흐리고비	3/6
장성	흐리고비	-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북동~동	0.5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남동~남	0.5	서~북서	0.5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0.5	남서~서	1.0~1.5	
면바다(서)	남동~남	0.5	서~북서	0.5~1.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3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16	07:42
	15:01	20:19
여수	밀물	썰물
	09:53	03:14
	21:58	15:55

◇주간 날씨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	☀	☀	☀	☁	☁	☀
1/6	-1/7	-1/8	1/8	4/8	5/7	2/6

## 광주·전남 '금연클리닉' 7000명 돌파

새해들어 급증...정부 약값 등 지원 신안·담양 증가율 전국 2·3위 올라

광주·전남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새해 들어 보름 만에 7000명을 돌파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현재, 올 들어 광주 2754명·전남 4791명 등 총 7545명이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선언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 등록자 증가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은 9위(369.7%, 1020→4791명), 광주 12위(337.8%, 629→2754명)를 기록했다.

전국 시·군·구별 등록자 증가율은 신안군 2625%(4→109명), 담양군 2200%(8→184명)이 나란히 상위 2·3위를 차지했다. 증가율 1위는 경남 고성군(5187.5%, 8→423명)이었다.

전남 22개 시·군중에서 올해 신규 등록자는 여수시가 6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포시 572명 ▲순천시 481명 ▲광양시 319명 ▲해남군 277명 순으로 조사됐다. 순천시는 전남 지역에서 전년도 대비 가장 낮은 증가율(158.6%)을 보였는데 전년도 186명에 비해 295명이 늘어난 수치다.

올 들어 광주지역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1위는 북구 790명(증가율 329.3%)이었고 ▲광산구 658명(“ 298.8%) ▲서구 551명(“ 340.8%) ▲남구 488명(“ 419.1%) ▲동구 267명(“ 337.7%)이 뒤를 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전국 병·의원 금연 치료를 받을 때 드는 상담료, 약값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상반기 안에 고도흡연자를 위한 단기 금연캠프를 개설할 예정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청소년은 흡연하지 맙시다”

광주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20일 광주역 대합실에서 이동 금연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에게 금연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고용부, 전교조 위원장 당선 신고 반력

### “과반 미달로 재선거해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출한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력했다. 20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었다고 신고했지만, 계산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 과반수 표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병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 16조는 재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임원 선거는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초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반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부가(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력한 만큼 전교조가 재선거할 때까지 병성호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집행위원회 등 회의의 거쳐 21일 오후 4시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햇빛발전협동조합 워크숍’

### 오늘 광주NGO센터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준비모임은 21일 오후 4시 광주NGO센터에서 ‘광주전남의 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의 가능성과 필요조건을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동시대

학교 차인수 수소에너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료는 광주시 서경식 신재생에너지담당 사무관과 전남도 김형진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장이 각각 나선다.

특히 준비모임 차원에서 비전 및 활동방향과 관련, 정용식 준비위원을 비롯한 사업 전망을 중심으로 정희함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호남회장이 참여한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박지연 간사 514-2470.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